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Vinorelbine, Ifosfamide 복합화학요법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성근*, 조정환, 양두경, 김성현, 권혁찬, 김제석, 김효진

배경 화학요법은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cisplatin-based regimen을 포함한 많은 regimen들이 독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cisplatin-based regimen으로 4~6회의 화학요법 후 나타나는 누적 부작용은 심각하며, 특히 신독성, 이독성, 피로감, 심한 오심 및 구토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Vinorelbine과 Ifosfamide를 사용한 복합요법의 저독성 및 1년 관해율의 우위성을 보고하는 국내외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저자들은 그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1998년 6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병리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병기가 III_B 또는 IV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병변을 가진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Vinorelbine 25mg/m²을 제 1일과 8일에 정주하였고 Ifosfamide 2g/m²을 제 1일에서 3일까지 mesna와 함께 정주하였으며 3주 간격으로 반복 투여하였다.

결과 전체 22명의 환자 중 남자는 13명, 여자는 9명이었고, 중앙연령은 58세(41~72)였다. 병리조직학적 진단은 상피세포암 8명, 선암 13명, 비분화성으로 아형구분이 되지않는 환자가 1명 있었고, 병기는 III_B 9명(41%) IV 13명(59%)이었다. 복합화학요법의 투여횟수의 중앙값은 4회(2~12)였고, 22명 중 완전관해 1명(4.6%), 부분관해 5명(22.7%), 불변 15명(68.1%), 진행 1명(4.6%)로 관해율은 27.3%였다. 복합화학요법의 총 111회의 투여 후 혈액학적 부작용은 3도 이상의 백혈구 감소증이 5회(4.5%), 3도 이상의 중성구 감소증이 9회(8.1%)였으며,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 3도 이상의 오심 및 구토가 3명, 신경병증 3명, 신독성 1명, 그 외 항암제 투여 중 혈관의 투여를 포함한 정맥염이 3명에서 나타났다.

결론 이상으로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Vinorelbine, Ifosfamide 복합화학요법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에서 Vinorelbine(VNB), Epirubicin(EPI) 복합화학요법

가천의대 혈액종양내과, 한림의대 혈액종양내과¹

방수미*, 정성권, 조은경, 이정애¹, 박영석¹, 신동복, 이재훈

배경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은 화학요법에 대부분 반응하지만 완치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저자들은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항암제인 Vinorelbine과 Epirubicin 복합화학요법의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였다.

방법 1997년 3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VNB 25mg/M²을 제 1일 및 8일에, EPI 60mg/M²을 제 1일에 정주하였고 매 3주마다 반복하였다. 전체 대상환자 34명중 VNB+EPI 투여 전 다른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초치료군)가 26명, 다른 화학요법 후 진행한 환자(구제요법군)가 8명이었다.

결과 초치료군의 중앙연령은 50세(31~64)였다.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있었던 4명의 환자를 제외한 22명의 환자 중에서 20명은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을 받았고 CMF 19명, CAF 1명이었다. 이들의 수술후 재발까지의 무병생존기간의 중앙값은 43개월(4~118)이었으며 전이부위는 내부장기를 포함하여 다발성 전이인 경우가 20명이었다. VNB+EPI 복합화학요법 투여 횟수의 중앙값은 4회(2~6)였으며 치료 후 중앙추적기간은 5개월이었다. 대상환자 26명 중 완전관해 2명(8%), 부분관해 9명(35%), 불변 10명(38%), 진행 5명(19%)으로 관해율은 43%였다. 관해를 보인 11명 환자의 관해유지 기간의 중앙값은 7개월로 이 중 2명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시점까지로 하였다. 초치료군의 무진행생존기간과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각각 7개월, 20개월이었다. 구제요법군의 중앙연령은 47세(40~62)였다.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있었던 2명을 뺀 6명의 수술후 무병생존기간은 26개월(12~119)이었고 이들의 선행화학요법은 CMF 3례, CAF 5례, VAM 2례, CEF 1례였다. 중앙추적기간은 11개월이었으며 8명 중 1명(13%)에서 부분관해를 보였다. 무진행생존기간과 생존기간의 중앙값은 각각 5개월, 9개월이었다. 초치료군의 104회 치료중 3도 이상의 백혈구감소를 보인 5회(5%)를 포함하여 총 42회(40%)에서 백혈구감소가 관찰되었고 구제요법군에서는 총 39회 치료중 3도 이상의 백혈구감소가 1회(3%) 발생하였고 전체적으로 12회(29%)에서 백혈구감소가 관찰되었다. 비혈액학적 독성으로 모든 환자에서 2도 이상의 탈모가 관찰되었고 동통을 동반한 혈관염이 23%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VNB+EPI 복합화학요법은 전이 혹은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서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비교적 경미하고 중증 부작용의 빈도는 낮아 유용한 치료법으로 사료된다.